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케빈 워시발 불안심리 잔존에도,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반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일(월) 미국 증시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불확실성 여파에 따른 귀금속 가격 변동성 지속에도, 1월 ISM 제조업 PMI(52.6 vs 컨센 48.5) 서프라이즈,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 마이크론(+5.5%) 등 메모리 업체 강세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다우 +1.1%, S&P500 +0.5%, 나스닥 +0.6%)

차기 연준의장 지명 소식 이후 케빈 워시의 공식적인 발언들은 없었지만, 과거의 행적을 놓고 시장 참여자들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금리인하 선호 but 양적긴축 선호, 트럼프와 연관된 중앙은행 독립성 이슈 등). 3월 중 상원 인준 절차 때까지 케빈 워시와 시장의 소통은 제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차기 연준의장 관련 노이즈가 증시에 빈번하게 유입될 소지가 있음.

다만, 연준은 본질적으로 데이터 의존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만약 양적긴축 단행 시 단기자금 시장 혼란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따라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불안감은 과장된 측면이 있기에, 현시점에서는 1월 고용(셧다운 여파로 연기, 발표 시점은 미정), 1월 CPI, M7, 방산, 조선 등 국내외 주도주 실적 이벤트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대안.

이런 측면에서 전일 1월 ISM 제조업 PMI가 신규주문(12월 47.4 -> 57.1) 급등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 내 견조한 실물 수요를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또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 및 가이던스 상향으로(매출성장률과 이익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수익성 지표 Rule of 40은 127%), 시간외 5% 넘게 상승하는 등 AI 수익성 불안을 덜어냈다는 점도 케빈 워시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에 따른 연준 불확실성 확대, 귀금속 폭락 사태 등으로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는 등 패닉셀링이 출현하며 폭락(코스피 -5.3%, 코스닥 -4.4%).

금일에는 차기 연준의장발 주식시장 변동성 진정, 미국 ISM 제조업 PMI 서프라이즈, 팔란티어 어닝 서프라이즈 등 미국발 안도 요인 속 전일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

전일 코스피의 5.3%대 급락은 2010년 이후 7번째로 높은 일간 하락률에 해당할 정도로 흔치 않은 주가 폭락 사태였음. 만약 추가적인 가격 조정 압력에 노출될 경우, "뒤늦게 고점에 물린 이들의 손절매 물량", "그간 수익을 내왔던 이들의 현금화 욕구"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하지만 과거 역대급 폭락 사태들에 비해 하락의 성격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가령, 역대 1위(24년 8월 5일 엔-캐리 사태, -8.8%), 2위(20년 3월 19일 코로나, -8.4%), 3위(11년 8월 19일 미 신용등급 강등 여진 + 유럽 재정위기 -5.7%), 4위(25년 4월 7일 상호관세, -5.6%), 5위(20년 3월 23일 코로나 -5.3%) 모두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급 악재, 시스템 리스크 불안감 등이 급락의 본질적인 원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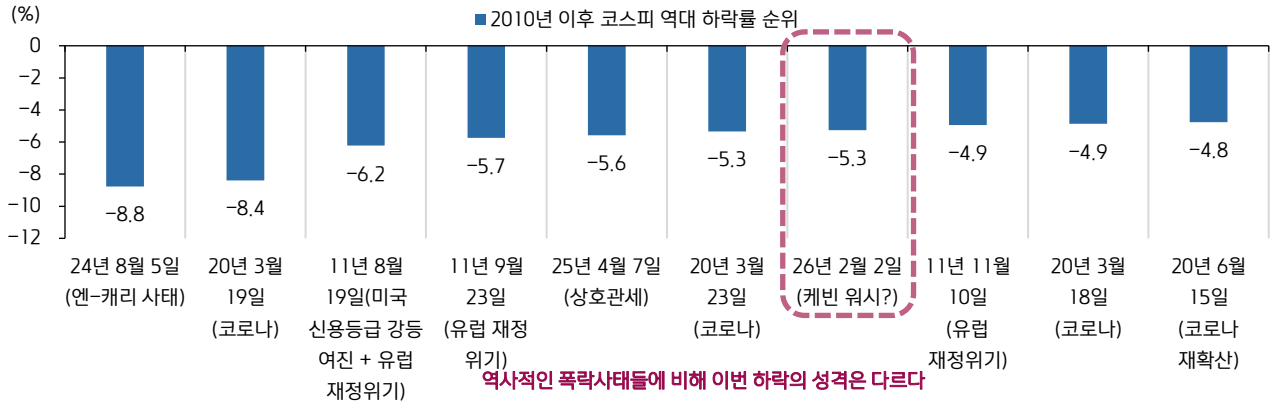
반면, 이번 5.3%대 급락 원인은 과거에 비해 연속성이나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월간 24%대 폭등에 따른

부담감 누적된 상황 속에서 차기 연준 의장 불확실성이 차익실현의 빌미가 된 수급상 악재의 성격이 짙기 때문. 실제로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1월 상승률은 각각 역대 3위, 역대 6위 기록했으며, 역사적으로 월간 폭등 이후 다음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각각 2%, 6%에 그쳤다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

아직까지 차기 연준의장 성향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전일 폭락 여진이 금일에도 증시에 잔존해 있을 수 있음. 여기서 과거 폭락기에 비해 악재의 성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 이외에도, 코스피를 5,000pt 돌파하게 만들었던 핵심 동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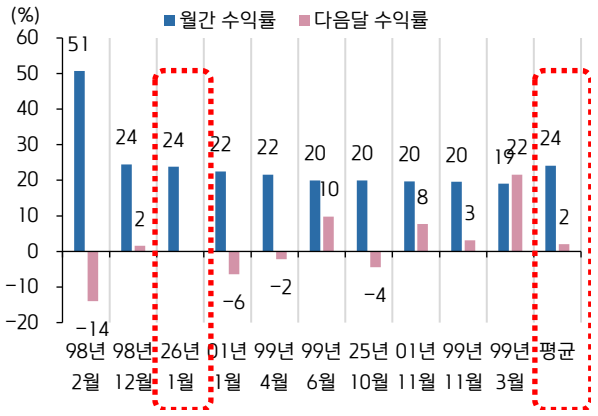
현재 코스피의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2월 말 427조원에서 2월 현재 564조원으로 한달만에 31% 상향됐으며, 추후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추가 상향될 여력이 존재. 코스피의 12개월 PER은 "순이익 상향 및 전일 주가 폭락"으로 9.4배를 기록하면서, 10년 평균(10.3배)을 하회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진 상황. 이처럼 "메모리 슈퍼사이클 등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내러티브와 실적 +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의 조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 이 같은 조합이 훼손되지 않는 한, 주가 복원력은 견조하며 상승 궤도에 재차 복귀할 것이라는 경로를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2010년 이후 코스피의 일간 하락률 상위권 비교: 과거 역사적인 폭락을 유발했던 사태들은 연쇄 하락을 유발할 만한 대형 악재에서 기인했지만, 이번 5%대 급락은 역대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과 차기 연준의장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전 폭락기에 비해 악재의 깊이나 강도가 다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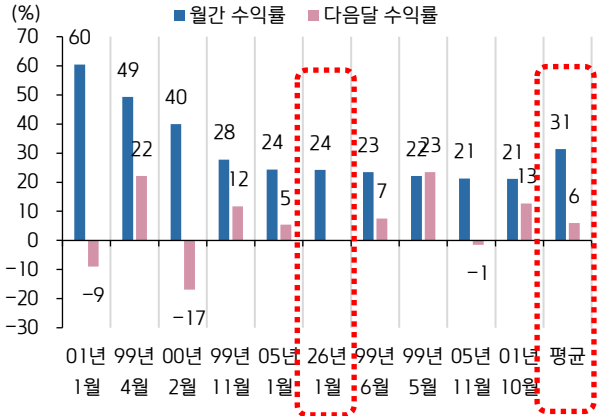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역대 코스피의 월간 상승률 및 다음달 상승률: 전달 폭등 이후 다음달에는 대체로 수익률 부진했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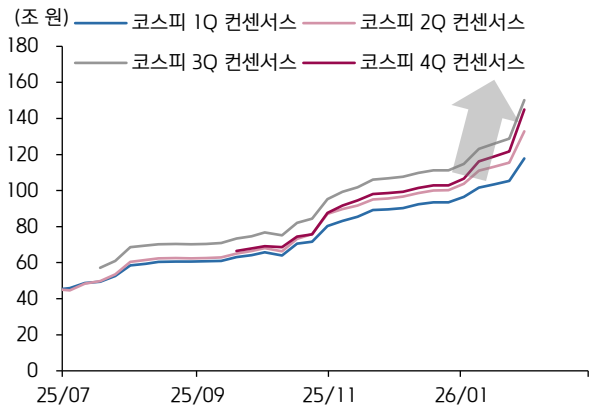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역대 코스닥의 월간 상승률 및 다음달 상승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폭등 이후에는 숨고르기 과정이 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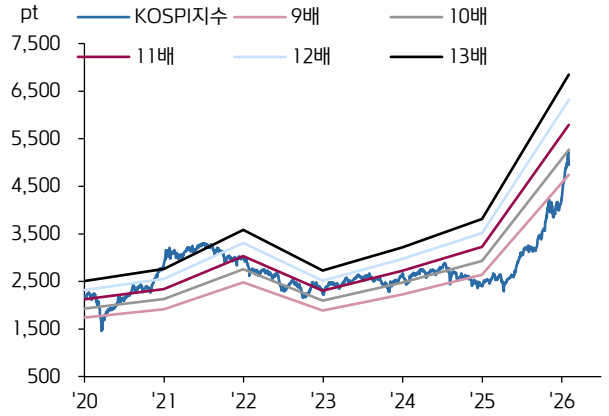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26년 영업이익 분기별 컨센서스: 주가 급락 및 투자심리 위축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 상향(2일 기준, 코스피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56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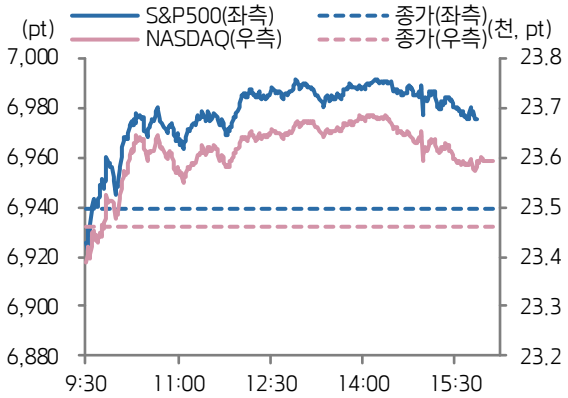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밴드: 순이익 전망 개선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한층 더 낮아졌다는 점이 주가 복원력을 부여할 전망(2일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9.4배 vs 10년 평균 10.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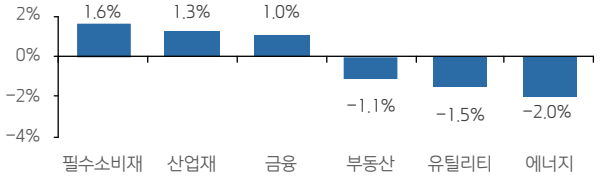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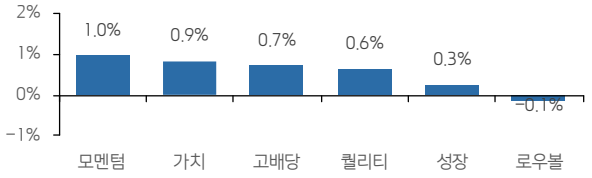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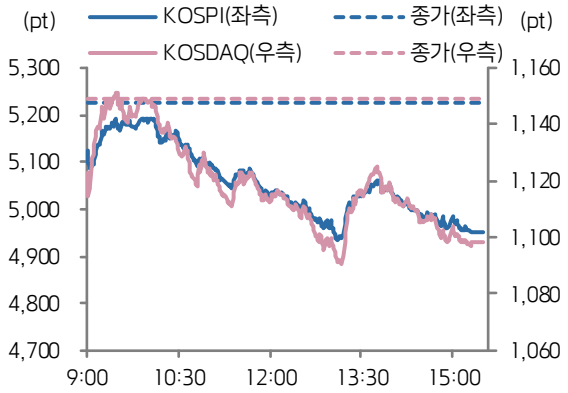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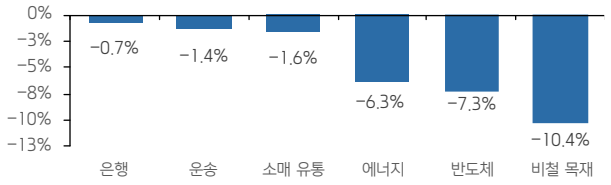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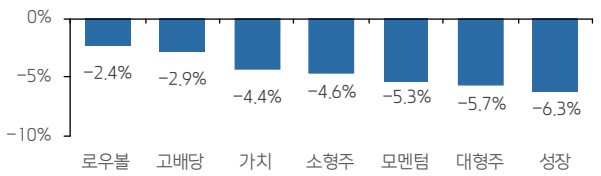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70.01	+4.06%	-0.68%	GM	84.27	+0.32%	+3.63%
마이크로소프트	423.37	-1.61%	-12.46%	일라이릴리	1,044.13	+0.67%	-2.84%
알파벳	343.69	+1.68%	+9.81%	월마트	124.06	+4.13%	+11.35%
메타	706.41	-1.41%	+7.02%	JP모건	308.14	+0.74%	-4.37%
아마존	242.96	+1.53%	+5.26%	엑손모빌	138.40	-2.12%	+15.01%
테슬라	421.81	-2%	-6.21%	셰브론	174.03	-1.62%	+14.19%
엔비디아	185.61	-2.89%	-0.48%	제너럴일릭트릭	124.06	+4.1%	+11.4%
브로드컴	331.11	-0.06%	-4.33%	캐터필러	690.91	+5.1%	+20.61%
AMD	246.27	+4.03%	+14.99%	보잉	233.02	-0.3%	+7.32%
마이크론	437.80	+5.52%	+53.39%	넥스트에라	86.33	-1.8%	+7.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949.67	-5.26%	+17.45%	USD/KRW	1,451.50	+0.55%	+0.83%
코스피200	725.46	-5.59%	+19.72%	달러 지수	97.62	+0.65%	-0.72%
코스닥	1,098.36	-4.44%	+18.68%	EUR/USD	1.18	-0.51%	+0.38%
코스닥150	1,939.62	-5.49%	+25.35%	USD/CNH	6.94	-0.23%	-0.47%
S&P500	6,976.44	+0.54%	+1.91%	USD/JPY	155.63	+0.55%	-0.69%
NASDAQ	23,592.11	+0.56%	+1.51%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9,407.66	+1.05%	+2.8%	국고채 3년	3.155	+1.3bp	+20.4bp
VIX	16.34	-6.31%	+9.3%	국고채 10년	3.605	-0.6bp	+22bp
러셀2000	2,640.28	+1.02%	+6.38%	미국 국채 2년	3.572	+4.9bp	+9.9bp
필라. 반도체	8,134.49	+1.7%	+14.84%	미국 국채 10년	4.277	+4.2bp	+11bp
다우 운송	18,876.37	+3.15%	+8.75%	미국 국채 30년	4.912	+3.9bp	+6.8bp
상해종합	4,015.75	-2.48%	+1.18%	독일 국채 10년	2.868	+2.5bp	+1.3bp
항셍 H	9,080.19	-2.54%	+1.8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666.46	+1.17%	-4.17%	WTI	62.14	-4.71%	+8.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6.30	-6.21%	+8.96%
Eurostoxx50	6,007.51	+1%	+3.73%	금	4,652.60	-1.95%	+6.37%
MSCI 전세계 지수	1,044.26	-0.56%	+2.92%	은	77.01	-1.94%	+9.07%
MSCI DM 지수	4,527.59	-0.41%	+2.19%	구리	582.55	-1.66%	+2.53%
MSCI EM 지수	1,528.09	-1.72%	+8.81%	BDI	2,148.00	+7.29%	+14.44%
MSCI 한국 ETF	120.93	-1.21%	+24.39%	옥수수	425.75	-0.58%	-3.2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7.75	-1.91%	+4.09%
비트코인	78,462.48	+2.66%	-10.48%	대두	1,060.25	-0.38%	+1.22%
이더리움	2,340.81	+2.27%	-21.39%	커피	333.25	+0.3%	-4.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2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